

전국 우체국망 활용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체계, 규모 확대된다

- 지구의 날 맞아 환경부·우정사업본부·네스프레소 우편 회수 업무협약 체결
- 5월 9일부터 사업 시행... 업체 참여 늘며 자원순환 기대, 사업 활성화 발판

커피캡슐 시장 1위 업체*의 참여로 전국 우체국망(우체통)을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체계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지사장 박성용)와 ‘우편 서비스를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사업 업무협약’을 4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8동 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달(5월) 9일부터 국제적인 커피 브랜드인 네스프레소의 커피캡슐도 우체국망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에 앞서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알루미늄 커피캡슐에 대한 새로운 회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2024년) 7월 동서식품과 협약을 맺고 이 회사의 커피캡슐(카누 바리스타) 수거를 진행한 바 있다.

우체국망을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체계에 새로 참여하는 네스프레소는 국내 커피캡슐 판매시장 1위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기업의 커피캡슐도 전국 우체국망을 통해 수거가 가능해지면 소비자의 배출 편의 향상과 함께 올바른 자원순환 체계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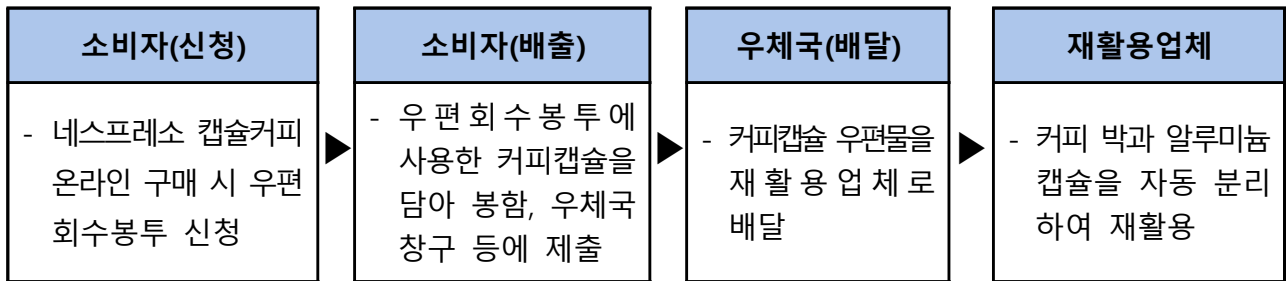
협약에 따라 네스프레소는 자사의 기존 회수 방법 외에도 우체국 창구

등을 통한 새로운 배출 요령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망을 활용한 커피캡슐 회수의 효율화 및 확대에 노력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행정 지원 및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네스프레소 알루미늄 커피캡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4월 말부터 네스프레소 공식 웹사이트(nespresso.com)에서 온라인 구매 시 우편회수봉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사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을 우편회수봉투에 담아 전국 3,300여 개 우체국 창구에 5월 9일부터 제출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체국 창구 외 우정사업본부가 도입 중인 ‘에코(ECO) 우체통’을 통해서도 회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재활용 과정 >



우체국은 소비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알루미늄 커피캡슐 우편물을 네스프레소의 재활용센터로 배달하게 되며, 재활용센터는 커피 박(찌꺼기)과 알루미늄을 자동 분리하는 등 재활용 공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알루미늄 커피캡슐 등의 일회용 폐자원도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제고와 다양한 회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수·재활용 등에 대한 순환이용률과 배출편의성 등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평가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들에게 배출의 편의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제고 효과도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의 대표적 사례가 됐다”라며, “우편서비스를 통한 오프라인 회수 활성화로 잦은 배출을 원하거나 온라인 수거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성용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장은 “네스프레소는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커피캡슐을 재활용하며 커피캡슐 업계의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며, “2024년 기준 2,248톤의 캡슐을 재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1,810톤의 탄소 절감 효과를 이뤄냈고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 정부, 기업이 함께 자원의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서.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책임자	과 장	안중기 (044-201-7421)
		담당자	사무관	배영균 (044-201-7425)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정철중 (044-200-8110)
		담당자	사무관	배진수 (044-200-8117)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환경부 · 우정사업본부 · 네스프레소 -

「일회용 알루미늄 커피 캡슐 우편회수」 협약서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네스프레소 사업부(이하 ‘네스프레소’)는 증가하고 있는 일회용 알루미늄 커피 캡슐(이하 ‘일회용 커피 캡슐’)의 자원순환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환경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협력하여 일회용 커피 캡슐의 자원순환 증진을 통해 친환경 자원 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 당사자는 다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협약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환경부는 일회용 커피 캡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 지원 및 제도 정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2.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의 효율화 및 확대에 노력한다.
3. 네스프레소는 기존 회수방법 외 우체국 창구 등 우편제도를 통한 새로운 배출요령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우편회수봉투를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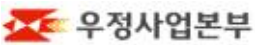

제3조(세부사항 추가 협의) 협약 당사자들은 추후 협의에 따라 제2조에 명시된 협력사항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협약 당사자가 협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협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연속 3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협약 당사자는 나머지 협약 당사자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비밀 유지)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네스프레소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관련 정보 일체를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보관) 본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하며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4월 22일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네스프레소
환경부 장관 김 원 섭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조 해 근	네스프레소 한국 지사장 박 성 용
_____	_____	_____